

“주방에서 지구가 보인다”

최근 ‘주방에서 지구가 보인다’ 또는 ‘주방에서 사회를 변혁한다’라는 말의 뜻을 세삼 음미하게 된다. 그 이유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가 거창하고 복잡하지만 그 해결은 생활의 원점인 주방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에서 파생된 표현이다.

주방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곳이어서 생활의 원점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생활인은 주방의 주인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환경의 파수꾼일 수 있다. 분명하게 해두고 싶은 말은 주방의 주인은 주부(主婦)만이 아닌 주부(主夫)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환경을 지키고 있는 주된 세력은 여성주부들이다. 주부 중에서 전업주부(1986년도 통계 676만 3천 명)들의 역할이 돋보인다.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 학교의 어머니회, 교회여성단체와 여성단체들의 지역단위의 활동내용들이 환경을 지키는 다양한 활동으로 채워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활의 원점에서 환경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생활인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매일의 일상생활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에 불편이 따르게 마련이며 응분의 비용부담도 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피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환경과 후세에게 물려줄 지구환경을 지킬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혼자서 하기보다는 지역단위의 집단활동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와 더불어 시민자치시대의 개막에 대비해 지역단위의 집단활동이 민주훈련의 장이 되기 때문에도 그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생활양식의 변혁이 필수적

우리의 생활을 환경친화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선 대량생산, 대량소비, 그리고 대량폐기의 물질만능의 소비미덕의 생활양식을 변혁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인간의 안이하고 편리하고 풍요롭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게 한 고도의 대중소비사회는 인간에게 환경파괴라는 부작용을 안겨주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전기 톱으로 버터를 썰기까지 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소위말하는 선진국의 생활수준을 선망하며 뒤따르기에 안간힘을 써오고 있다. 풍요함과 편리함을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삼은 나머지 성장위주의 국가시책에 박수갈채를 보내던 일이 었그제의 일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보릿고개’라고 하는 이름의 빈곤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대신 무거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문제, 대기문제, 식품문제, 대두아(大頭兒) 탄생문제 등이 그것이다. 지구적으로는 프레온 가스에 의한 오존층 파괴, 산성우에 의한 삼림과 호소의 피해, 열대림의 파괴와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에 의한 지구온난화 등이 지구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자칫 이러한 문제들이 나의 삶의 양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프레온은 오늘날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탄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양식의 변혁없이 제조자를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이 프레온뿐만 아니라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만들게 하고 있

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근간은 석유문명의 혜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석유문명은 비누를 비롯해서 의복, 전기, 자동차의 가솔린 그리고 에너지 등의 생활 필수품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프레온은 바로 석유정제에 필요한 나트륨 생산의 부산물인 염소의 처리물이다.

20년 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과 같은 인간사회의 성장의 추구가 물질우선 경제우선이 지속되는 한 21세기 중반에 이르면 지구는 환경오염과 자원, 에너지 그리고 식량고갈에 의해 붕괴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

우리 모두는 환경파괴에 있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가해자로서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실천수범해야 하는가 하면 피해자로서는 정부와 기업을 감시해야 하며 지역환경과 지구환경을 지킬 의무를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다.

① 각 개인의 일상생활의 환경점검(Eco Check)을 정기적으로 한다. 에너지 절약, 쓰레기 감량, 자원 재활용, 대중교통수단 활용, 물의 절약 및 재사용, 적정량의 물질사용 등의 소비억제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고 버리기까지의 과정, 꼭 필요한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가전제품인 경우 전기절약형인가, 공해식품은 아닌가, 재활용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본다.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한다. 영국의 경우 자선활동을 위한 수천 개의 중고품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자주 쓰지 않는 기구 등은 임대해서 사용하거나 공유하도록 한다. 최종 폐기할 때는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도록 하며 재사용품을 우선 구입해서 사용한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교환하며,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적어도 하나의 환경운동체에 가담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

②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감시하는 일에 앞장선다. 오늘과 같이 행정부의 환경의식의 미약함과 인력부족을 감안할 때 지역환경을 지키는 일은 지역주민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지도를 우선 만드는 것이다. 공해배출 업소나 시설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어떤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며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조사를 비롯해서 교통망, 보안시설,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휴식공간, 학교 주변환경, 하천등에 대한 지표를 만드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 지역을 쾌적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됐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작성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21세기 행동계획의 제28장에서는 각 지역을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역의 21세기 행동계획'(Local Agenda 21)을 1996년까지 시민과 지방정부와 그 지역의 기업들이 함께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한번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거듭해서 그 지역의 환경의 변화를 비교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애항심도 높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의 분위기를 복원해 낼 수도 있다.

③ 동시에 광역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진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문제, 하천수질문제, 산성우 문제, 녹지대 보전 광역쓰레기 매립문제 등은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이웃 지역과의 또는 적국적인 연대를 통해 성취해 낸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며 우리나라 전체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과제를 해낼 수 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환경운동체에 가담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④ 중앙 및 지방 행정부의 환경정책과 행정을 감시한다. 행정부의 조직 중에서는 환경분야가 가장 약한 위치에 있다.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낙동강의 폐놀사건 등에서와 같이 사건이 터지면 그 수습에 법석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외면한 결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사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어쨌거나 우리 정부는 환경관련법과 함께 정책을 세우고 있다. 그런것이 얼마나 잘 적용하고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

에 더해서 오늘의 환경문제가 국제정치의 중요의제로 그리고 그린라운드로 상징되는 국제경제의 의제로도 부상하게 되어 정부는 환경정책과 행정의 재정비를 서둘러야만 한다. 정부로 하여금 이들의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일도 주민의 책임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⑤기업에 대한 환경감시를 해야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에 비해 환경친화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은 그리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이다. 우리에게 구미의 나라들과 같이 기업과 상품을 환경적으로 평가한 안내서도 없다. 환경친화상품 표시제도가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크게 좌우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최근에는 많은 상품들이 녹색상품인 양 그리고 기업들이 녹색기업인 양 광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과연 광고내용과 같이 환경친화적인 공정을 거쳐서 물품을 만들고 있는지 폐기물 배출을 억제하며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공해방지 기술개발 등을 비롯한 환경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등의 감시를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와 함께 소비자의 뭉쳐진 힘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

어느 단계까지의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고 저항적이며 폭로성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주민의 피해를 외면한 개발정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요구를 봉쇄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민간 환경운동단체와 정부가 협력관계를 통해 환경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는 환경운동이 대안제시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앞으로의 시민 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 분명하며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시각 시정도 필수적이다.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주부운동이나 주민운동이 생활협동조합운동이나 무공해식품 직거래운동 그리고 재활용품분리수거운동,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운동 등의 친환경적인 생활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밝은 전망을 예고해 주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도시주민의 건강한 식탁과 지역환경을 만들고 UR 로 인한 폐농의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농촌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도농간의 막혔던 장벽이 제거된 유기적인 관계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산다는 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늘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위한 일차적인 과제가 바로 우리나라 농촌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는 인식은 아주 중요하다.

앞서 '주방에서 사회를 변혁한다'라고 했다. 가정생활의 상징인 주방에서 사회를 변혁하는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성주부들에 의해서 생명이 넘치는 세상이 유지된다는 말이다.♣

「세계와나」 1994년 12월호

이제부터 농촌을
민중의 주권으로 되찾아 주라

도시와 농촌
도시민과 농민
도시와 농촌
도시민과 농민
도시와 농촌
도시민과 농민

5/24 12, 5/24 2/1

발음술 독후감시리즈 9월 2주 5월 2주

1996학년도 여성대학(환경전문과정) 제 6강좌

담당교수 : 박영숙 선생님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 일 시 : 1996년 3월 22일(금) 10:00 -12:00

“주방에서 지구가 보인다”

최근 '주방에서 지구가 보인다' 또는 '주방에서 사회를 변혁한다'라는 말의 뜻을 새삼 흥미하게 된다. 그 이유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가 거창하고 복잡하지만 그 해결은 생활의 원점인 주방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에서 파생된 표현이다. 가정 생활을 같이 하는 주방은 문화는 생활

주방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곳이어서 생활의 원점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생활인은 주방의 주인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환경의 파수꾼일 수 있다. 분명하게 해두고 싶은 말은 주방의 주인은 주부(主婦)만이 아닌 주부(主夫)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환경을 지키고 있는 주된 세력은 여성주부들이다. 주부 중에서 전업 주부(1986년도 통계 676만 3천 명)들의 역할이 돋보인다.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 학교의 어머니회, 교회여성단체와 여성단체들의 지역단위의 활동내용들이 환경을 지키는 다양한 활동으로 채워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활의 원점에서 환경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생활인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매일의 일상생활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에 불편이 따르게 마련이며 응분의 비용부담도 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피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환경과 후세에게 물려줄 지구환경을 지킬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혼자서 하기보다는 지역단위의 집단활동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와 더불어 시민자치시대의 개막에 대비해 지역단위의 집단활동이 민주훈련의 장이 되기 때문에도 그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생활양식의 변화가 필수적

우리의 생활을 환경친화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선 대량생산, 대량소비, 그리고 대량폐기의 물질
만능의 소비미덕의 생활양식을 변혁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인간의 안이하고 편리하고 풍
요롭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게 한 고도의 대중소비사회는 인간에게 환경파괴라는 부작용을 안겨주
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전기 톱으로 버터를 썰기까지 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소위말하는 선진국의 생활수준을 선망하며 뒤따르기에 안간힘을 써오고 있다. 풍요함과 편리함을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삼은 나머지 성장위주의 국가시책에 박수갈채를 보내던 일이 엇그제의 일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보릿고개’라고 하는 이름의 빈곤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대신 무거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문제, 대기문제, 식품문제, 대두아(大頭兒) 탄생문제 등이 그것이다. 지구적으로는 프레온 가스에 의한 오존층 파괴, 산성우에 의한 삼림과 호소의 피해, 열대림의 파괴와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에 의한 지구온난화 등이 지구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자칫 이러한 문제들이 나의 삶의 양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프레온은 오늘날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탄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양식의 변혁없이 제조자를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이 프레온뿐만 아니라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만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근간은 석유문명의 혜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석유문명은 비누를 비롯해서 의복, 전기, 자동차의 가솔린 그리고 에너지 등의 생활 필수품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프레온은 바로 석유정제에 필요한 나트륨 생산의 부산물인 염소의 처리물이다.

20년 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과 같은 인간사회의 성장의 추구가 물질우선 경제우선이 지속되는 한 21세기 중반에 이르면 지구는 환경오염과 자원, 에너지 그리고 식량고갈에 의해 붕괴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

우리 모두는 환경파괴에 있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가해자로서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실천수범해야 하는가 하면 피해자로서는 정부와 기업을 감시해야 하며 지역환경과 지구환경을 지킬 의무를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다.

① 각 개인의 일상생활의 환경점검(Eco Check)을 정기적으로 한다. 에너지 절약, 쓰레기 감량, 자원 재활용, 대중교통수단 활용, 물의 절약 및 재사용, 적정량의 물질사용 등의 소비억제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고 버리기까지의 과정, 꼭 필요한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가전제품인 경우 전기절약형인가, 공해식품은 아닌가, 재활용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본다.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한다. 영국의 경우 자선활동을 위한 수천 개의 중고품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자주 쓰지 않는 기구 등은 임대해서 사용하거나 공유하도록 한다. 최종 폐기할 때는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도록 하며 재생용품을 우선 구입해서 사용한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교환하며,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적어도 하나의 환경운동체에 가담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

②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감시하는 일에 앞장선다. 오늘과 같이 행정부의 환경의식의 미약함과 인력부족을 감안할 때 지역환경을 지키는 일은 지역주민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지도를 우선 만드는 것이다. 공해배출업소나 시설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어떤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며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조사를 비롯해서 교통망, 보안시설,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휴식공간, 학교 주변환경, 하천등에 대한 지표를 만드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 지역을 쾌적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됐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작성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21세기 행동계획의 제28장에서는 각 지역을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역의 21세기 행동계획'(Local Agenda 21)을 1996년까지 시민과 지방정부와 그 지역의 기업들이 함께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한번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거듭해서 그 지역의 환경의 변화를 비교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애함심도 높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의 분위기를 복원해 낼 수도 있다.

③ 동시에 광역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진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문제, 하천수질문제, 산성우 문제, 녹지대 보전 광역쓰레기 매립문제 등은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이웃 지역과의 또는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성취해 낸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며 우리나라 전체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과제를 해낼 수 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환경운동체에 가담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④ 중앙 및 지방 행정부의 환경정책과 행정을 감시한다. 행정부의 조직 중에서는 환경분야가 가

장 약한 위치에 있다.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낙동강의 폐놀사건 등에서와 같이 사건이 터지면 그 수습에 법석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외면한 결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사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어쨌거나 우리 정부는 환경관련법과 함께 정책을 세우고 있다. 그런것이 얼마나 잘 적용하고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의 환경문제가 국제정치의 중요의제로 그리고 그린라운드로 상징되는 국제경제의 의제로도 부상하게 되어 정부는 환경정책과 행정의 재정비를 서둘러야만 한다. 정부로 하여금 이들의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일도 주민의 책임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⑤기업에 대한 환경감시를 해야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에 비해 환경친화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은 그리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이다. 우리에게서 구미의 나라들과 같이 기업과 상품을 환경적으로 평가한 안내서도 없다. 환경친화상품 표시제도가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크게 좌우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최근에는 많은 상품들이 녹색상품인 양 그리고 기업들이 녹색기업인 양 광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과연 광고내용과 같이 환경친화적인 공정을 거쳐서 물품을 만들고 있는지 폐기물 배출을 억제하며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공해방지 기술개발 등을 비롯한 환경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등의 감시를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와 함께 소비자의 뭉쳐진 힘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

어느 단계까지의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고 저항적이며 폭로성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주민의 피해를 외면한 개발정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요구를 봉쇄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민간 환경운동단체와 정부가 협력관계를 통해 환경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환경운동이 대안제시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앞으로의 시민 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 분명하며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시각 시정도 필수적이다.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주부운동이나 주민운동이 생활협동조합운동이나 무공해식품 직거래운동 그리고 재활용품분리수거운동,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운동 등의 친환경적인 생활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밝은 전망을 예고해 주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도시주민의 건강한 식탁과 지역환경을 만들고 UR 로 인한 폐농의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농촌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도농간의 막혔던 장벽이 제거된 유기적인 관계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산다는 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늘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위한 일차적인 과제가 바로 우리나라 농촌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는 인식은 아주 중요하다.

앞서 '주방에서 사회를 변혁한다'라고 했다. 가정생활의 상징인 주방에서 사회를 변혁하는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성주부들에 의해서 생명이 넘치는 세상이 유지된다는 말이다.●